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동족(同族)에 대한 마음>을 보았었습니다.

그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골육과 친척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동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이 동족을 위해 안타까워하는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를 믿는데, 동족(同族)은 예수를 거절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유대인의 불신과 복음의 거절이라는 상황**이 연속되자, 이 때 바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廢)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해오셨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출애굽, 사사시대, 왕들의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부단하게 말씀해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오던 것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신앙적 유산(遺産)**들이었습니다.

## I. 바울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유산들 (로마서 9:4-5)

이 이스라엘의 영적유산(靈的遺産)들을 바울은 로마서 9:4-5절에 명시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제하여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의 구절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7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자만 알것입니다. 그저그런 구절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쳐지나가기 쉽습니다. 보물같은 이 유산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 1. ‘양자 됨’ (the adoption as sons)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처음에 등장하는 곳은 아마도 출애굽기 4:22-23절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長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출4:22-23)였습니다.**

\*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백성들(고난받고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32:5절에, 40년 광야여행을 마치는 모세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줄때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흙이 있고 뼈떨어진 세대로다.”**로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구약의 선민개념을 양자론(養子論)으로 발전시킵니다. 양자라는 것은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시대의 관행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영적전통, 위대한 전통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묘사(描寫)요 서술(敘述)입니다.

## 2. 영광 (永光, δόξα the divine glory)

두 번째 영적유산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 올때에, 하나님과 말하였음을 인해 그의 얼굴과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했던 그 영광입니다(출34:29) 이 빛은 사람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얼굴 빛과 다른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구약에서 이 빛을 대표하는 용어는, '쉐키나 영광'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6: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과 빛이 어루러진 장관,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출애굽기 40:34-35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하던 그 빛입니다(17: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 즉, 영광을 보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을 모시고 뵙는 찰나, 순간들이 있었던 민족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 3. 언약들 (the covenants/διαθηκαι)

구약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ברית"(베리트)로 표현되며, 그 총 출현 횟수는 약 280회 내외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 특히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어진 신성한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하며, 여러 형태의 언약들이 구약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구약 언약들로는 창조언약, 무지개언약, 아브라함언약, 모세언약, 다윗언약 등이 포함됩니다

구약성서를 구약(舊約)이라하고, 신약성서를 신약(新約)이라 함도, 사실은, 성경이 언약의 책이란 말입니다. 언약은 체결자들이 쌍방으로 존재합니다.

**\* 중간정리 :**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4. 율법 (the receiving of the law)

하나님은 출애굽이후,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동강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며 인간의 실존을 극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입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신교의 세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유일신교와 한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 십계

명은 인류역사의 대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서 구체화됩니다.

율법은, 언약의 구체적 내용이며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파멸을 명확히 합니다.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대변합니다.

## 5. 예배 (the temple worship)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에 맺어진 거룩한 약속의 실제적 만남이자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예배의 책임입니다. 시작의 책임, 창세기에만도 예배가 여러번 등장합니다.

새번역성경은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예배>로 번역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창세기 4:26절, 13:4절, 21:33 절에 예배가 나옵니다. 21:33절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번역하면 완벽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장인 22:5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유명한 장에서, 예배라는 실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שָׁח (샤하)로, '엎드리다', '경배하다', '몸을 굽히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자신의 가장 가치있는 것을 드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진심으로 복종과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예배라는 유산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6. 약속들 (the promises : epaggelia )

약속들은 언약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언약은 조건적인 쌍방의 문제이고,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창세기 12:1-3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거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17은 창세기를 주목한 것인데, 아브라함을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6:12절은 우리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8-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전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 7. 조상과 그리스도 (the patriarchs & Christ)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제쳐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의 '조상'에 해당하는 원어는 헬라어 πατέρες(파테레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들', 즉 선조들이나 족장들을 의미하며, 혈통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조상은 관념이 아니며 실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조상의 계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약속의 하이라이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갈라디아서 3:16절에서 바울사도는 매우 독특한 강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가운데의 인물들, 그중에 빛나는 그리스도 이것이 신앙적유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 이스라엘이 가진 이 영적유산들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이 유산들이 폐하여진 것 같은 현실에서 사도는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최고의 갑부인데, 그 유산이 있는데도, 그곳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후손들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II. 고민하던 바울의 문제해결의 힌트

영적인 유산이 그렇게도 많은 이스라엘이, 복음(福音)을 거부(拒否)한다는 것에 대한 바울의 충격은 고민으로 큰 아픔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민은, 한가지 질문으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실현될 수 있는 말씀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에게뿐 아니고, 민족들과 나라들과 인류에게 주신 그 많은 말씀들, 예언들이 과연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인가? 이 언약의 말씀들이 과연 실현가능한 말씀들일까? 괜히 희망고문하는 말씀들이 아닐까 하는 회의적 생각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But),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바울은 왜 그런 생각을 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본문의 7-18절에서, 바울은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말라기서’ 까지를 섭렵합니다. 구약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한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계보입니다. 거기에 사라, 리브가가 등장하고 야곱, 에서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나중엔 모세도 등장합니다.

그는 구약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성경을 관통하는 눈으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만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한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만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후손들이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1)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약속할 때에, 단지 아버지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혈통만 이어지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계(母系)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2) 인간의 선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에 의해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10-13절의 말씀입니다.

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창25:13) 13. 기록된 바 내가 아홉은 사랑하고 여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1:2하)

\* 인간의 출생순서나, 서열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이든자나 어린자의 문제도 초월합니다. 서열상의 역전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자유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3), 이게 가장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느 일부의 선택된 자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핵심인 듯 보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廢) 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디테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자기인식의 방법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도 당연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제한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하나님은, 하갈도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디테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불경이며 불신의 극치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18-19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민수기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人生)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가진 유산들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누리십시오.

기도 :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영적유산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구원관을 벗어나 하나님의 깊고 넓은 구원의 계획을 받아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불잡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있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족장들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